

2024년 3월 11일의 메시지

지진과 해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
피난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먼 곳에서 고향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의 슬픔과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여러 생각을 마음에 담은 채 오늘,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로부터 13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가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도 귀환을 위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조적 부흥의 핵심 거점'이 되는 F-REI(에프레이)에서는 새로운 기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현내로의 이주자 및 신규 취업자 수가 과거 최다를 갱신하고 현산품의 수출액도 과거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프라이드'를 가슴에 새기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온 도전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재건과 더불어 감소한 인구의 회복, 생업과 산업의 재생,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폐로의 대처 등, 부흥을 향한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13년이라는 세월의 경과로 지진 재해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사는 우리는 당연한 나날이 내일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라마치 다이이치 중학교 스즈키 마히루 씨 '미래로의 편지')

2024년 1월 1일,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을 진원으로 한 대지진은 많은 소중한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사람들로부터 앗아갔습니다.
지진 재해로 많은 것을 잃은 가운데 많은 분들의 온정으로 버텼던 우리이기에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다가가야 합니다.
지진 재해의 경험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해가는 것은 지진 재해를 경험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후쿠시마의 부흥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많은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후쿠시마를 더 많이 홍보해서 저 삭막한 땅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활기로 넘쳤으면 좋겠다.'
(시라카와 다이니 중학교 스즈키 린 씨 '미래로의 편지')

올해부터 인터하이 남자 축구 경기가 J 빌리지에서 개최됩니다.
부흥의 상징이 된 장소가 전국 청소년들의 동경의 장소가 됩니다.
'후쿠시마의 지금'을 알기 위해 젊은이들이 피재지를 찾아와 직접 '보고' '느껴서' 지진 재해를 자기 일로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의 교류 속에서 서로를 북돋우고 새로운 빛을 발하는 그런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후쿠시마에는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라카와 다이니 중학교 고바리 메루 씨 '미래로의 편지')

우리는 앞으로도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후쿠시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후쿠시마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가겠습니다.

'현민 여러분의 미소를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마음에 강하게 새긴 그날의 결의.
그 원점을 잊지 않고 후쿠시마의 미래를 온 힘을 다해 개척해 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2024년 3월 11일

후쿠시마현 지사 우치보리 마사오